

宮牆歌



[해제]

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으로 일종의 도덕가사이다. 제목에서 ‘궁장(宮牆)’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궁궐을 짓는 노래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실제 건축이 아닌 유교(儒敎)의 성립된 내력을 말하고 있다. 그 내력을 주(周)나라 주공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문(孔門)의 70제자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 공부자(孔夫子)의 집을 구경하러 가자는 것으로 시작하여,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복희씨(伏羲氏)를 들어 이 땅에 유교의 시작은 바로 이 분들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유교와 관련된 용어를 궁궐짓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로 궁궐을 짓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유교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후대에 가서도 유교사상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내용을 사설 전개 순에 의해 파악하면, ①집 구경의 권유와 공자의 집 확인, ②집터의 형국과 집 구성의 열거에 따른 칭송, ③집의 좌향과 공자 제자의 출입, ④ 집 구경 가는 길의 안내, ⑤ 집 구경을 재차 권유하며 다짐하는 등, 5단계의 단계의 구성을 취하여 각 부분마다 도덕적 사설 일색으로 되어 있다. 공자로부터 끼쳐진 윤리의식과 중국 고사의 인용이 많아서 유가(儒家)의 관념적 교훈가의 표본이 된다 하겠다. 서씨가장본(徐氏家藏本)의 『동음(東音)』에 <대명복수가>, <천군복위가>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퇴계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본에 따라 작자나 제목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같은 내용으로 된 가사로 <도덕가>, <퇴계선생도덕가>, <권선지로그>, <지로그>, <유학지로그>, <공부자궐리가>, <안택가>, <인택가>, <퇴계선생등루가>, <등루가> 등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재효가 정리 창작한 판소리 단가 <허두가>에도 같은 명칭의 작품이 실려 있어 조선시대에 널리 부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원문]

春秋비록 暮大하나 日昃토록 不遑暇食
 舜禹授受 精一心法 王霸부터 갈나니아
 桓交詭遇 춤을받고 範我馳驅 수리몰아
 漢朝唐宗 울니치고 二典三謨 講究한後
 千門萬戶 다열치고 三代之治 하여보자
 天地間 生生化化 우리君王 ㅎ意思라
 鳶飛魚躍 氣像이오 和風慶雲 光景이라
 明命昭布 百執事아 都兪吁咈 仿佛하다

宮牆歌

退溪李先生 凡四十六句

어화 번임내야 집구경 가자시라
 집이스 문컨마는 차자갈집 다라니라
 鳳凰臺 黃鶴樓는 騷客의 구경處오
 洛城臺 岳陽樓는 俗士의 구경處라
 宇宙의 비켜서서 빈집을 침각하니
 안마도 죠흔집은 孔夫子님 집이로다
 東山이 主山이오 泗水가 橫帶水라

濃山이 白虎되고 汶水가 靑龍이라
 文明한 山水間의 素王의 萬世基라
 周公의 文章道德 죠흔터 싹거두고
 藩離을 帀포하고 大家을 니라시니
 五行으로 柱礎하고 仁義禮智 기동삼아
 三綱領 大樑언저 八條目 도리삼아
 六十四卦 썩여니야 介介히 掾木거러
 三百八十 四爻數로 차차로 산자미자
 五十土 알미언저 太極으로 盖瓦하고
 日月星辰 牕戶슴고 洛龜河馬 丹青하니
 어화 장홀시고 이런집이 쏘인난가
 三十木이 東門이요 四九金이 西門이라
 一六水가 北門이요 二七火가 南門이라
 仁門을 呑히열고 義路을 크게싹거
 禮樂文物 가최두고 오난스람 밧게하니
 宮牆이 呑흔곳의 뉘뉘가 엿보던고
 風乎舞雩 詠歸人은 堂上의 올라가고
 陋巷春風 簞瓢士는 室中으로 드러가고
 琴張과 木皮子와 子路와 仲弓이와
 冉有와 閔子騫과 冉伯牛는 문안의
 기여들고
 七十弟子 三千人은 歷歷히 記錄하야
 古今天下 呑흔집은 이집밧게 다시업다
 집구경 갈나거던 이집으로 가자시라
 沉沉子夜 가지말고 明明白白 가자시라
 正道가 坦坦하니 찾기스 쉽단마는
 九仞山이 呑하시니 너머가기 어렵소다
 안마도 우리드리 차자가여 보자시라
 가다가 저물거든 晦庵의 드러자고
 伊川의 帀를새와 明道게 기를무러
 光風霽月 발근곳의 空中樓閣 구경하고
 龜巖으로 닳려가셔 述聖公宅 구경하고
 亞聖公宅 닳려갈제 復聖公宅 잠관보고
 宗聖公宅 지닌後의 杏檀을 바리보고
 萬世春光 자진곳의 하마하마 불덧하되
 宮牆이 千仞이라 仰之彌高 어이홀고
 瞻之在前 엿뜩보고 忽然在後 모르더라
 不遠千里 와엿다가 집구경 못하오면

前功可惜 되오리라 功虧一簣 이들쏘다
어화 後生들아 孜孜克力 차자가쇼

[현대역]

춘추(春秋)100 비록 모대(暮大)101하나 일측(日昃)102토록 불황가식(不遑暇食)103
 순우수수(舜禹授受)104 정일심법(精一心法)105 왕패(王霸)106부터 갈나늬야
 환교계우(桓交詭遇)107 춤을 받고 범아치구(範我馳驅)108 수리몰아
 한조당종(漢朝唐宗)109 물리치고 이전삼모(二典三謨)110 강구(講究)한 후
 천문만호(千門萬戶) 다 열치고 삼대지치(三代之治) 하여보자
 천지간(天地間) 생생화화(生生化化)111 우리 군왕(君王) 한 의사(意思)라
 연비어약(鳶飛魚躍)112 기상(氣像)이오 화풍경운(和風慶雲)113 광경(光景)이라
 명명소포(明命昭布)114 백집사(百執事)115 도유우불(都兪吁咈)116 방불(仿佛)하다

궁장가(宮牆歌)

퇴계이선생 범사십육구(退溪李先生 凡四十六句)

어와 벗님네야 집구경 가자스라

집이야 많컨마는 찾아갈 집 다르니라

봉황대(鳳凰臺)1 황학루(黃鶴樓)2는 소객(騷客)3의 구경처(處)오

낙성대(洛城臺) 악양루(岳陽樓)4는 속사(俗士)5의 구경처(處)라

우주(宇宙)에 비켜서서 빈집을 생각하니

아마도 좋은 집은 공부자(孔夫子)님 집이로다

동산(東山)이 주산(主山)이오 사수(泗水)가 횡대수(橫帶水)6라

농산(濃山)이 백호(白虎)되고 문수(汶水)가 청룡(靑龍)이라

문명(文明)한 산수간(山水間)에 소왕(素王)7의 만세기(萬世基)라

주공(周公)8의 문장도덕(文章道德) 좋은 터 닦아두고

번리(藩離)를 배포하고 대가(大家)를 이뤘으니

오행(五行)으로 주초(柱礎)9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기동삼아

삼강령(三綱領)10 대량(大樑)11엿어 팔조목(八條目)12 도리삼아

육십사괘(六十四卦) 빼어내어 개개(介介)13히 □木거러

삼백팔십사 효수(爻數)14로 차차로 산자맞어

오십토(五十土) 알미엿어 태극(太極)으로 蓋□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 창호(窓戶)삼고 낙귀(洛龜)15하마(河馬)16 단청(丹青)하니

어와 장할시고 이런 집이 또 있는가

삼십목(三十木)이 동문(東門)이요 사구금(四九金)이 서문(西門)이라

일육수(一六水)가 북문(北門)이요 이칠화(二七火)가 남문(南門)이라

인문(仁門)을 높이 열고 의로(義路)을 크게 닦아

예악문물(禮樂文物) 갖춰 두고 오는 사람 받게하니

궁장(宮牆)17이 높은 곳에 뉘뉘가 엿보던고

풍호무우(風乎舞雩) 영귀인(詠歸人)18은 당상(堂上)에 올라가고

누항춘풍(陋巷春風) 단표사(簞瓢士)19는 실중(室中)으로 들어가고

금장(琴張)20과 목피자(木皮子)21와 자로(子路)22와 중궁(仲弓)23이와

영유(冉有)24와 민자건(閔子騫)25과 영백우(冉伯牛)26는 문안에
기어 들고
칠십제자(七十弟子) 삼천인(三千人)은 역력(歷歷)히 기록하여
고금천하(古今天下) 높은 집은 이 집밖에 다시 없다
집구경 가려 거던 이 집으로 가자스라
침침(沉沉)27 자야(子夜) 가지 말고 명명백백(明明白白) 가자스라
정도(正道)가 탄탄(坦坦)28 하니 찾기가 쉽다마는
구인산(九仞山)이 높았으니 넘어 가기 어렵도다
아마도 우리들이 찾아가 보자스라
가다가 저물거든 회암(晦庵)29에 들어 자고
이천(伊川)30에 배를 띄워 명도(明道)31께 길을 물어
광풍제월(光風霽月)32 밝은 곳에 공중누각(空中樓閣) 구경하고
구암(龜巖)으로 내려가서 술성공택(述聖公宅)33 구경하고
아성공택(亞聖公宅)34 내려갈 제 복성공택(復聖公宅)35 잠깐 보고
종성공택(宗聖公宅)36 지난 후에 행단(杏壇)37을 바라보고
만세춘광(萬世春光) 잦은 곳에 하마하마 볼 듯 하되
궁장(宮牆)이 천인(千仞)38이라 양지미고(仰之彌高) 어이할고
담지재전(瞻之在前) 언뜻 보고 흘연재후(忽然在後)39 모르더라
불원천리(不遠千里) 와엎다가 집구경 못하오면
전공가석(前功可惜)40 되오리라 功□一篲 애담도다
어와 후생(後生)들이 자자(孜孜)41극력(克力) 찾아가쇼

[각주]

- 1) 봉황대(鳳凰臺) : 이태백(李太白)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로 유명한 누각.
- 2) 황학루(黃鶴樓) : 양자강 중류 호북성 무창현 서쪽 사산(蛇山)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황학바위위에 세워졌다하여 황학루로 불림. 당나라 때 시인인 최호(崔顥)의 <등황학루(登黃鶴樓)>로 유명한 중국의 3대 누각 중 하나
- 3) 소객(騷客) : 소인(騷人).
- 4) 악양루(岳陽樓) : 동정호 동북부인 악양의 성루. 송나라 때 범중엄의 <악양루기(岳陽樓記)>로 유명함.
- 5) 속사(俗士) : 속사에 능(能)한 인사(人事), 평범(平凡)한 사람.
- 6) 횡대수(橫帶水) : 풍수사상에서 물이 혈 앞을 좌우로 옆으로 띠같이 흐르면 혈판의 기가 보호되는 물을 말함.
- 7) 소왕(素王) : 왕위에 있지는 않으나 임금의 덕을 갖춘 사람. 유가(儒家)에서는 공자(孔子)를, 도가(道家)에서는 노자(老子)를 이룸.
- 8) 주공(周公) : 주(周) 무왕(武王)의 아우, 이름은 단(旦). 무왕을 도와서 주왕(紂王)을 치고, 무왕이 죽은 뒤, 조카 성왕(成王)을 도와서 주(周)왕조의 기초를 굳힘. 유가(儒家)에서 성인(聖人)의 한 사람으로 일컬음. 주공(周公) 단(旦)이라고도 함.
- 9) 주초(柱礎) : 주춧돌.
- 10) 삼강령(三綱領) : 유교의 핵심 경전인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인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於至善).
- 11) 대량(大樑) : 대들보.
- 12) 팔조목(八條目) :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 13) 개개(介介) : 마음이 결백하여 세속(世俗)과 어울리지 않는 모양. 경경(耿耿).
- 14) 효수(爻數) : 음과 양을 표현하는 부호로서, 여섯 개의 부호가 겹쳐져서 괘(卦)를 이루는데 주역 64괘 384효가 있는 것.
- 15) 낙귀(洛龜) : 낙수의 거북이(洛龜). 우(禹)가 황하의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등에 낙서(洛書)를 짊어지고 나타났다는 신기한 거북이.
- 16) 하마(河馬) : 하도(河圖). 옛날 중국(中國) 복희씨 때에 황하(黃河)에서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선 다섯 점의 그림. 우 임금 때의 낙서와 함께 주역(周易) 이치(理致)의 기본(基本)이 되었음.
- 17) 궁장(宮牆) : 담.
- 18) 영귀인 :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의 고사. 논어(論語) <선진(先進)> 편에서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공자의 물음에 거문고를 뜯다가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 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겠다고 대답함.
- 19) 단표사 : 공자의 제자 안회의 고사. 논어(論語) <옹야(雍也)> 편에 나온 “一簞食와 一瓢飲”으로, 공자가 제자 안회를 어질다고 평가함.
- 20) 금장(琴張)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려(牢), 자(字)는 자장(子張).
- 21) 목피(木皮) : 공자의 제자.
- 22) 자로(子路) : 공자의 제자. 자로는 자(字). 성명은 중유(仲由).

- 23) 중궁(仲弓) : 공자의 제자 영옹(?雍).
- 24) 영유(?有) : 공자의 제자로 자(字)는 자유(子有).
- 25) 민자건(閔子騫)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민손(閔損), 자(字)가 자건(子騫).
- 26) 영백우(冉伯牛) :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경(耕), 자(字)는 백우(伯牛).
- 27) 침침(沉沉) : 밤이 깊어 조용한 모양. 깊은 모양. 침착한 모양.
- 28) 탄탄(坦坦) : 평평하고 넓은 모양.
- 29) 회암(晦庵) : 송(宋)의 주희(朱熹)가 강학(講學)하던 서실(書室). 이로 인하여 주희를 회암 선생이라 일컬음.
- 30) 이천(伊川) : 송(宋)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정이(程?)의 호(號).
- 31) 명도(明道) : 북송(北宋)의 학자 정호(程顥)의 호.
- 32) 광풍제월(光風霽月) :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이란 뜻으로,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쇠락함
- 33) 술성공(述聖公) : 공자의 제자 자사(子思). 성은 공(孔), 이름은 급(伋), 공자(孔子)의 손자, 鯉의 아들.
- 34) 아성공(亞聖公) : 공자의 제자인 맹자.
- 35) 복성공(復聖公) : 공자의 제자 안자(顏子). 이름은 회(回), 자(字)는 자연(子淵).
- 36) 종성공(宗聖公) :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 이름은 참(參), 자(字)는 자여(子輿).
- 37) 행단(杏壇) :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했다는 곳.
- 38) 천인(千仞) : 산이나 바다가 몹시 높거나 깊음을 이르는 말.
- 39) 양지미고(仰之彌高) 첨지재전(瞻之在前) 홀언재후(忽焉在後) : 논어(論語) <자한(子罕)> 에서 나오는 구절로, 안연(顏淵)이 공자의 도덕과 학문의 무변광대함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쳐다보면 더욱 높고 뚫어 보면 더욱 단단하며, 바라보니 앞에 있다가 문득 뒤에 있도다(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 40) 전공가석(前功可惜) : 전에 들인 공이 아까움. 지난날에 애써 한 일이 보람 없이 됨.
- 41) 자자(孜孜) :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양.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